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10 부부극장 풍각지	00 KBS 뉴스광장 20 100년의 기개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검사)	30 KBC 모닝와이드
08 15 코모닝 A	25 아침마당	00 위기탈출 넘버원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0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TV 소설 (수금의 땅)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부	10 2014 국민의 선택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제조	30 개그콘서트		30 드라마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재)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0 진짜 사나이 스페셜	
12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05 글로벌 다큐멘터리		00 특집 MBC 정오뉴스 20 무한도전 선택 2014 스페셜 1~2부	
1 30 뉴스 특급	00 제35회 근로자 가요제	20 수목 드라마 (골든크로스 스페셜)(재)		00 SBS 뉴스 10 닥터 365 15 가정달 특집 다큐멘터리 (신내리 청춘학당)
2 40 직언직실	50 강연 100℃ 특선			15 세계 대기행 35 정글의 법칙 스페셜
3 50 6·4지방선거 특집 박종진의 쾌도난마	10 주말드라마 (정도전)(재)			
4 00 KBS 뉴스 10 주말드라마 (정도전)(재)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0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부	00 2014 국민의 선택
5 3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1부	00 2014 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1부		0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3부	10 2014 호남의 선택 20 2014 국민의 선택
6 0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2부		0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재·1회) 30 생생 정보통	00 선택 2014 특집 MBC 뉴스데스크	35 2014 호남의 선택 50 2014 국민의 선택
7 2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3부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45 2014 호남의 선택
8 4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4부	00 KBS 뉴스9 20 2014 지방선거 대표방송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00 2014 국민의 선택 SBS8 뉴스
9 0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5부			0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4부	00 2014 호남의 선택 KBC 8 뉴스 20 2014 국민의 선택
10 1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6부		00 수목드라마 (골든 크로스)		20 2014 호남의 선택 45 2014 국민의 선택
11 10 6·4지방선거 대표방송 약속 2014 7부		10 특선 영화 (전국노래자랑)	0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5부	30 2014 호남의 선택 50 2014 국민의 선택
			50 선택 201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00 2014 국민의 선택 특집 나이트리안 40 특선영화 (싸니)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리얼토크 여왕의 외출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7:00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재)	15:30 꼬마거북 프랭클린	20:40 다큐 오늘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태양이 떠오르는 땅, 터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초대석	16:00 워킹맘 유지원(재)	21:30 한국기행 (문화예술 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지식채널e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사이먼	16:30 핵갈피 오정 또보	22:45 극한직업 (사해안 꽃게 집이)
08:20 적과 땅(재)	13:20 골골! 패파는 즐거워	16:45 Why-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고양이 파피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50 Why-최고대! 호기심 딱지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15 꼬마버스 타요	24:10 한국 영화 특선 (로한의 비사할)(재)
09:05 핵갈피 오정 또보(재)	14:00 머털도사	17:30 로보카 폴리	
09:20 미술품원대	14:30 코코몽2	17:45 투디다쿵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국어 II)
01:4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1:40 " (영어특혜의 기본 II)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 (수학 II)	14:00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영어 A형)
04:10 " (과학)	15:40 " (영어 B형)
05:00 " (한국사(하)(재))	16:30 "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법 II)	19:00 "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픽스 (영어특혜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09:10 "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 (영어특혜연습①-종합편)

EBS플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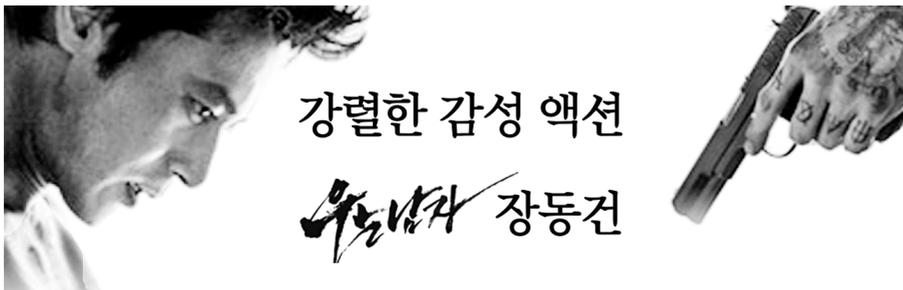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사회 3-1)
07:30 친절한 수학 익힘풀이 (6-1)	16:20 " (사회 4-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 5-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00 출제순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전과목 6-1)
09:50 " (수학 (하))	18:00 TV 중학 (영어3-1)
10:30 " (도덕)	18:40 " (수학3-1)
11:10 " (국어 ③④)	19:20 등업신공 (사회3-1)
11:50 " (수학2(하))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2:30 등업신공 (사회)	20:40 " (영어)
13:10 " (역사)	21:20 " (과학)
13:50 " (역사2)	22:00 " (수학)
14:30 " (사회2)(재)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중급)
15:20 초등 기말성취도평가 대비특강	23:20 중학e포스 영문본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5월 7일 丙午)

子	36년생 핵심을 짚자. 48년생 돈 쓸 일은 늘어나지만 들어 올 곳은 한정적이다. 60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72년생 재물 복을 부르는 청신호를 접하게 된다. 84년생 더 흔들리기 전에 빨리 중심을 잡자. 행운의 숫자 : 44, 78	午	42년생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절실하다. 54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려라. 66년생 똑 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78년생 삼가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리라. 행운의 숫자 : 74, 21
丑	37년생 가치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49년생 길음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 줘라. 61년생 지켜봐야겠다. 73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1, 93	未	43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55년생 딱딱한 것이 사서히 소통되리라. 67년생 깊이 있는 교활을 통해서 조심스런 행동을 해야겠다. 79년생 가치 많은 나무에 버림 잘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4
寅	38년생 대중 넘길 일이 아니니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라. 50년생 정치하거나 보류 될 수도 있는 애매한 판국이다. 62년생 상대가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74년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29, 86	申	44년생 제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나 테크닉이 요정된다. 56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68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사가 필수적이다. 80년생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니 좌표를 재조정 하자. 행운의 숫자 : 58, 95
卯	39년생 달리는 말에 체력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51년생 뜻밖의 이익을 얻는 기쁨이 상당할 것이다. 63년생 막연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75년생 일방적이었던 경지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30	酉	45년생 빈틈없이 살펴 나간다면 변동해도 좋다. 57년생 많은 의미 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라. 69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81년생 쾌도난마 했을 때 정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2, 65
辰	40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해결 될 수다. 52년생 한 눈에 보아도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64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의 기운을 부르리라. 76년생 오히려 인한 갈등이나 의심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11, 56	戌	46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보인다. 58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70년생 오래 동안 쌓여 있어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82년생 약간만 시야를 넓히면 많은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69
巳	41년생 심시일반의 원리로 진행태산 하리라. 53년생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산이다. 65년생 애로 사항이 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다. 77년생 모순되면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0, 94	亥	47년생 대단히 불리하니 일단 정지 하자. 59년생 마음을 빼앗긴 단단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다. 71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된다. 83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0,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강렬한 감성 액션

우울함의 장동건

“13년만의 누아르 ... 우울함의 결정판이죠”

흑사회 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소유한 킬러.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을 빼들고 상대를 사살하고, 총알 세례 속에서도 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

마흔을 넘긴 두 자녀의 아버지지만 구르고 뛰고 싸우는 액션을 온몸으로 소화했다. 이정범 감독이 연출한 ‘우는 남자’에 출연한 배우 장동건 얘기다. 장동건이 액션 누아르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친구’(2001) 이후 13년 만이다.

사실 액션 영화는 그에게 친숙한 장르다. ‘무국’(2005)과 할리우드 진출작 ‘워리워스 웨이’(2010)에서는 천하제일의 검술을, ‘태극기 휘날리며’(2003)와 ‘마이웨이’(2011)에서는 전쟁터에서 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우는 남자’에서는 전선에 투입된 병사와는 다른 충격 장면을 선보인다. 장동건이 맡은 킬러 곤과 흑사회에서 온 삼인방이 아파트에서 겨루는 총격 장면에선 수백 발의 총알이 스크린 이곳저곳을 헤집는다.

“마이웨이” 때보다 더 많은 총탄을 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을 사용하는 장면은 여러 영화에서 찍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능숙하게 총을 다루어 한다는 점에서 어려웠어요. 총을 쏘 때 눈은 깜빡이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인물들이 생동맞게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장면들이 있던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는 난도 높은 액션 장면을 소화하고자 강도 높은 훈련도 했다. 매일 액션 스톱에 도착해 약 3.5km의 거리를 달렸고, 발차기를 했다. 무술 감독과 다양한 합도 맞췄다. 훈련에 들어가면 4~5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그렇게 4개월 반을 연습했다.

“처음 한 달은 많이 힘들었어요. 기존 액션 영화에선 통상 2~3주 정도 훈련했어.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이 가장 많은 시간을 훈련에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용 4~5년간 쉬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화에서 그는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신이 죽인 여아의 엄마 모경(김민희)을 지키려 한다. 조직을 배반하면서까지 과연 그 래야 했을까, 의문이 솟구친다.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영화로 만들면서 충분히 했어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곤이 버림받는 플래시백 장면이 오프닝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프닝의 소지가 있었죠. 곤이 왜 버려졌는가가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경을 구하려는 이유는 모경의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엄마 때

문이예요.”

장동건의 깊은 눈은 평생 외로움에 허덕였던 곤의 아수 같은 눈빛을 표현하기에 제격인 듯 보인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삶에 지친 한 킬러의 고독을 그는 섬세하게 표현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액션 장면에서조차 곤은 자기와의 싸움 같은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타일리시하게 찍지 않은 것 같아요. 맨몸 액션은 차절하죠. 마치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듯한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감독님은 액션장면을 찍을 때 폴사보다는 얼굴을 클로즈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액션 자체보다 감정이 중요했어. 그런데 이번 영화에선 감정을 잡는 게 이상하리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장동건은 ‘친구’ 이후 묵직하고 어두운 세계 속을 살아가는 ‘아드레날린’ 넘치는 영화들을 많이 찍었다. ‘태극기 휘날리며’이 그랬고, ‘마이웨이’가 그랬다. ‘우는 남자’는 그런 양을 한 세계관의 결정판이다.

“친구” 이후 그런 캐릭터를 다른 영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어두운 캐릭터들을 선호해요. 이번 ‘우는 남자’는 그 우울함의 결정판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모든 걸 쏟아내자. 아무런 미련없이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밝고 일상적인 영화들을 찍고 싶어요.”(웃음)

영화에서 곤은 미국에서 자란 킬러 역이다. 그런 만큼 대사의 상당 부분을 영어로 소화해야 했다. “제가 외국어 연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일어·영어는 물론 러시아어와 태국어까지 해봤어요. 그중 영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이 잘 아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곤은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도 잘하는 인물입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영어는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톱스타 장동건은 최근 영화에서 흥행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워리워스 웨이’는 43만 명을 모으는 데 그쳤고, 약 300억 원이 투입된 ‘마이웨이’는 214만 명을 모았을 뿐이다. 장바이즈(張栢芝) 등과 호흡을 맞춘 하진호 감독의 ‘위험한 관계’는 30만 명을 동원했다. 잇단 부진 때문일까?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최근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했다.

“흥행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내면의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이정범 감독과 작업하면 슬럼프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김정태, 아들 ‘야꿍이’와 선거 유세 논란

“죄송하고 매우 안타깝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인기가 높았던 배우 김정태 부자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선거유세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야꿍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그의 4세 아들 지후 군이 후보자 홍보에 동원된 듯한 인상을 줘 비난이 나온다.

이에 김정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정치적으로 아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논란이 되었던 유세 행사에 야꿍이가 원치않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것 같아 야꿍이를 사랑해주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본인으로써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지후 1일 새누리당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후보 측은 블로그를 통해 “야꿍이와 야꿍이 아빠와 함께하는 나동연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나 후보 측은 “너무나 귀여운 야꿍이의 인기가 나동연 후보자와 아빠 김정태는 뒷전으로 밀렸는데, 야꿍이 덕분에 양산시민 여러분들이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인터넷에서 이미 퍼져나간 상태.

김정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어린이 재단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저만 참석하기로 한 행



사”라면서 “가볍게 부인과 야꿍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후보를 만나고 가족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스के줄이어서 매너지도 없이 갖다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 결코 정치적으로 아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KBS 기자협, ‘방송법 위반’ 혐의 김환영 사장 고발

KBS 기자협회는 3일 김환영 사장과 이정범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 기협은 고발장에서 김 사장과 이수석,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김 사장에 지시하는 방법으로 KBS 방송편성을 규제, 간섭해온 사람이다.

KBS 기협은 고발 근거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KBS 기협은 “김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 등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기자회권과 사내 조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대 노조와 기협은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전날 지역방송총국 평가자로 발령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